

“과제 결과물은 좋은데,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

1면에서 계속 →

AI는 과제·시험 수행 시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하는 과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박 씨는 “연구가 많이 축적된 분야의 경우 교수에게 묻기 전에 AI를 활용하기도 한다”며 “특히 수업 후 교수에게 질문할 기회가 부족할 때 AI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어 논문은 대부분 직접 읽지만 외국어 논문의 경우 필요한 문맥을 중심으로 읽고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수자들은 AI를 수업에서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학교 가이드라인은 교과목 목적에 따라 AI 활용 수준을 금지형·제한허용형·적극통합형으로 정하도록 한다. AI 사용 자체를 일괄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기보다 수업 목표에 따라 활용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교실의 변화 기준을 만드는 논의로

대학은 이런 흐름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중이다. 우리학교 역시 지난 1월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서울 주요 9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을 살펴본 결과, 학교 차원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존재한다.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AI를 학습과 연구의 보조 도구로 규정한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출처 표기와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담겼다.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지난 4월 ‘논술 과제에서 AI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했다.

(사진=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제공)

하지만 대학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은 허용 범위와 평가 방식을 담당 교원이 수업별로 정하도록 한다. 수업 목적에 따라 문장 다듬기, 번역, 자료 요약과 같은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과제의 목적과 전공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AI가 교실에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선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우리신문이 만난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지난 4월 ‘논술 과제에서 AI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열고 학과 환경에 맞춘 AI 사용법을 논의했다.

토론 이후에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제 유형별 AI 활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학과에서 자주 제출하는 요약, 독후감, 연구계획서 등 과제를 중심으로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경상국립대사회학 2024) 학생회장은 “수업은 열심히 안 들은 것 같은데 글은 잘 썼고,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글이 어려운 경우

가 있었다”며 “평가자인 교수님들이 곤란해 하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여자 이현진(경상국립대사회학 2024) 씨는 “과제물은 잘 썼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기 생각이 진짜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AI를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론과 TF를 거치면서 AI 활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올라갔다”고 입을 모았다. AI는 이미 교실

에 들어왔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히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직접 해야 하며, 그 기준을 누구와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묻는 일이 남았다. 김 학생회장은 “이 과정이 당연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신문은 다음 회차에서 글쓰기와 논증을 시작으로 계산과 코딩, 예술과 창작, 실험과 현장·전문 판단에서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DX추진단의 경희대학교 디지털·AI 전환 사업을 소개합니다!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 (챗쿠)

chat.khu.ac.kr

교육·연구·행정에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멀티 LLM 기반의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여러 최신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챗봇 제작부터 MCP 연동은 물론, 다양한 에이전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크레딧 한도를 상향해 매월 4,000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교육 프로그램
AiKHU (아이:쿠)

aikhu.khu.ac.kr

학업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중심의 No-Code 생성형 AI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입문, 활용, 심화 총 3단계로 구성된 강좌와 함께 실습 과제, 강의노트 등을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AI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학생성장플랫폼
Grow-KHU
(그로우쿠)

대학생활 전 주기 데이터를 통합·연계해 ‘전공 탐색·진로 설계·활동 관리·역량 개발’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중심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친화적 UI/UX를 기반으로 대학 내 공지사항부터 전공 선택, 현장실습, 대외활동 관리까지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사 챗봇
AskKHU (애스쿠)

askhu.khu.ac.kr

경희대학교 학사 정보 안내용 AI 챗봇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24시간 다국어 지원을 기본으로, 반복적인 단순 문의 응대와 기본 학사 정보 안내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학사 정보에 관한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AskKHU와 대화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6 KHU AI Challenge”: 학생의 도전과 창의 AI 활용 경진대회 & 교직원 AI 활용과 혁신 AI 활용 성과발표회

▶ 출품 부문: AI 문제해결 솔루션 / AI 창작콘텐츠

▶ AI 활용 경진대회 접수: ~ 10월 12일 월요일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확인 →)

▶ 우수작 시상·발표: 11월 19일 목요일 15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및 피스홀

